

産業保健에 關한 一考



소 장 이 영 대

1. 序

5 次의 經濟開發計劃에 힘 입어 우리도 이제는 先進國의 문턱을 向하여 한발 다가 선 産業立國의 自負心을 갖게 된다. 오늘의 눈부신 經濟成長이 있기까지는 政府·企業·勤勞者 國民全體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땀흘려 일한 結實임을 새삼스레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보다더 잘살기 위해서는 持續的인 成長이 요구되는 터라 이러한 成長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産業生産의 障礙物로서 産業災害는 우리 앞에 달갑지 않은 障礙物처럼 놓여 있다. 알찬 果實을 거두자면 病蟲害를 防除하고 果木의 被害를 最小化 하듯 産業生産으로부터 産業災害의 豫防은 産業體 및 國富를 倍加할 뿐만 아니라 人命의 保護와 尊重을 더불어 生覺케 한다. 本考에서는 産業安全에 對한 枝葉의 視覺이나 理論的 思考를 避하고 그동안 産業安全業務에 對한 一線責任者로서 實務를 通하여 느낀 點을 一考하고자 한다.

2. 最近의 産業災害發生 趨勢 및 實態

産業災害의 發生을 業種別로 나누어 보면 鑛

業, 製造業, 建設業, 電氣-가스 및 水道業, 運輸-保管 및 通信業 其他 産業으로 볼 수 있는데 産業災害統計를 들면 1975~1984 10년간 産災死亡은 약 12,900 명 負傷 또는 疾病은 약

1,237,100 명 도합 1,250,000 여명이 목숨을 잃거나 負傷, 疾病으로 苦痛을 겪었다. 이를 經濟的 損失로 換算하면 무려 7,109 億원으로 推定된다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全體 勤勞者數를 一定基準으로 보고 그 중 産災發生頻度를 나타내는 指數가 흔히 말하는 災害發生率이다. 同指數에는 勤勞者 1,000 人當 災害者數를 보이는 千人率 ($\frac{\text{災害者數}}{\text{勤勞者數}} \times 1,000$), 延勤勞 100 만 時

間當 災害發生件數를 보이는 度數率($\frac{\text{災害件數}}{\text{延勤勞時間數}} \times 1,000,000$), 勤勞日數 千日當 災害發生으로 인한 損失日을 보이는 強度率 ($\frac{\text{勤勞損失日數}}{\text{延勤勞日數}} \times 1,000$) 이 있다. 全産業의 度數率로 보아 '75 年~'78 年 期間은 16.16~16.63 의 僅少한 差異를 보여 왔으나 '79 年에 13.52, '80 年에 11.12 로 顯著한 減少를 보이고 '81 年~'84 年 (12.38~13.09) 의 最近 4 年間도 그런대로 減

少의 趨勢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한 現狀이다. 災害強度率도 '75年의 3.29에서 '80年~'84 (2.80~2.58)의 最近 5年間 같은 減少趨勢를 본다. 그러나 '83年의 災害原因別 分析을 通하여 보면 總 災害 156,972件 中 ①不安全的 行動 — 자세·동작의 불량, 위험물취급부주의, 위험장소에 접근 —으로 인한 災害가 44.0%, ②安全知識不足 — 機械器具의 오조작, 운전 중인 機械裝置의 손질, 불안정한 速度造作 —으로 인한 災害가 21.5%, ③施設瑕疵 — 생산공정, 작업장소, 안전방호장치의 缺陷 —으로 인한 災害가 19.4%, ④監督不充分 — 불안전상태 방지, 감독 및 연락 불충분 —으로 인한 災害가 12.7%의 順으로 나타나 있다.

3. 産業災害 豫防 對策

가. 事業場內 安全保健管理 體制 確立

産業安全保健法上 常時勤勞者 1,000人이상 事業場에는 安全保健管理責任者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구분하여 安全·保健管理者 및 安全·保健擔當者를 두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한 安全·保健業務關係者는 法上 資格을 要求하고 있는 데 事業場에서 無資格者를 選任하므로써 産業安全保健業務의 實効를 거두지 못한다면 産業災害豫防을 期待할 수 없음이 分明하다. 事業場內 安全保健管理體制의 確立은 安全保健業務를 위한 前提要件이다.

나. 安全保健業務의 活性化

앞서 '83年 災害原因別分析의 例를 들면 아직도 우리 産業災害의 77.7%는 不安全的 行動, 心理的 不安定, 監督不充分, 安全保健知識不足에서 오는 初步的 災害가 大部分임에 留意할 必要가 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豫防可能한 災害가 된다. 作業場所, 作業實情에 따라 알맞는 安全保健守則을 制定하여 實踐하고 勤勞者에 對한 安全保健教育을 通하여 安全保健意識을 높여야 할 것이다. 通常 “사고를 내지 말라” “건

강을 지켜라”는 式의 安全保健教育으로는 도저히 災害를 豫防할 수도 없고 그러한 教育은 하나하나한 僥倖數에 不過하다. 體系적이고 內實 있는 安全保健教育이 要求된다.

다. 事業主의 能動的 姿勢

직업병 예방과 産業災害의 豫防은 勤勞者의 努力도 不可缺하지만 누구보다도 經營의 運轉者의 인 事業主의 能動的인 姿勢가 要望된다. 이 점은 法上 安全保健業務遂行의 主導的인 責任을 명백히 하여 事業主에게 맡긴 義務이기도 하다. 安全保健教育을 시키고 各種 安全設備과 保健施設을 갖추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 조성할 義務者가 事業主이다. 짧은 眼目에서 生産에만 關心을 갖기 보다는 긴 眼目으로 災害豫防에서 올 利潤과 從業員家族의 人命을 아낄 줄 아는 企業倫理를 지녀야 人間답고 훌륭한 事業主이다.

라. 監督官廳의 支援

産災豫防業務는 資金, 技術, 努力이 同時에 必要한 것이기도 하다. 政府도 産業災害 豫防을 위하여 온갖 努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技術的인 指導監督의 質과 量을 높여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現在 격무에 시달리는 勤勞監督官을 늘리고 産業安全保健에 關한 持續的인 專門教育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産災保險特別會計의 一定比率을 産業安全保健事業 및 安全施設資金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자금으로 長期低리로 融資해 줌이 좋을 것이다. 産業安全保健業務에 대한 教育資料(슬라이드, 책자) 供給도 더 擴大할 必要가 있다.

4. 結 語

직업병과 産業災害의 豫防目標은 이제 어느 特定의 個人 또는 集團에 限定된 것이 아니다. 우리 産業社會의 共通의 課題라는 認識을 바탕으로 事業場 安全保健管理體制의 確立, 安全保健業務의 活性化, 事業主의 能動的 姿勢, 政府의 支援과 指導를 調和하여 推進할 때 큰 成果가 있을 것임을 믿는다.